



사회 >> 3면

문화산업 고질병 '암표', 이제는 잡을 수 있을까?

기획 >> 4면

'어른이'가 된 2030, 장난감 소비문화를 바꾸다

현장르포 >> 5면

문경새재에서 잉카마야까지...걸으며 발견한 문경의 문화

제602호

2026년 9월 16일(수)

코스모스처럼 활짝 피어날 우리...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마쳐

우리대학이 지난 8월 13일 2025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열고 학부 및 대학원 졸업생과 외국인 유학생, 예술교육원 소속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번 후기 학위수여식은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학과별로 학위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졸업생들은 학과별 일정에 따라 학위증을 받고 담당 교수와 인사를 나누며 대학 생활을 마무리했다.

한편 학사복을 착용하고 졸업을 기념하는 학생들을 위해 OO:RE 총학생회에서는 학위 가운 대여 사업을 마련했다. 학위 가운 대여는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운관 L층에서 진행됐다.

학사복은 총학생회 측에서 사전에 공지한 구글 폼을 통해 예약을 완료한 학생과 행사 당일 오후 3시까지 현장에서 대여를 신청한 학생을 대

상으로 제공됐다. 총대여 인원은 117명으로 집계됐다. 대여료는 30,000원이며, 사전 예약자의 경우 보증금 10,000원을 학사복 정상 반납이 확인된 후에 돌려받을 수 있었다.

졸업생들이 학사복과 함께 착용할 수 있는 학사복 리본은 선착순으로 무료 대여가 가능했다.

졸업을 기념할 수 있는 포토존도 청운관에 마련됐다. 포토존은 오후 2시까지 운영했으며 학우들은 해당 공간에서 뜻깊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포토존 뿐만 아니라 이날 교정 곳곳에서는 졸업을 맞은 학생들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보였다. 졸업생들은 학사모와 학사복을 갖춰 입고 기념사진을 남기거나 동기들과 함께 교정을 둘러보며 학교생활의 마무리를 기

넘했다. 가족과 지인들이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색색의 꽃다발을 들고 학교를 찾아온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학사복 대여 사업을 총괄한 OO:RE 총학생회 미래교육국장 김승준(경영 21) 학우는 "이번 학위수여식은 서경대학교에서 오랜 시간 소중한 배움과 성장을 이룬 졸업생들이 결실을 보는 자리"라며 "교정을 떠나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학부생과 유학생, 그리고 예술교육원 학생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앞날을 축하하는 따뜻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 학우는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영예로운 학위를 받은 모든 졸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도전을 이어 나갈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

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번 후기 학위수여식을 통해 학교 생활을 마무리한 박유빈(실용무용 23) 학우는 "학교에 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다"며 "큰 도움을 주신 교수님과 후배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교 차원의 행사 없이 학과별 학위증 수여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학사복 대여와 포토존 등 관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학 생활의 마지막 모습을 남겼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제주에 남긴 발걸음, 환경을 위한 실천으로

우리대학 2026년 제주도 플로깅 봉사활동 '한여름의 제주일지' 성료



▲ 출처 : 최원석 제공

제주도의 자연을 걸으며 환경을 지키는 우리대학 학생들의 플로깅 활동이 올해도 이어졌다. 제54대 총학생회 OO:RE는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간 '한여름의 제주일지' 제주도 플로깅 봉사활동을 진

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제주 환경에서 애월 일대를 걸으며 지역 환경을 정화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플로깅은 조깅하며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운동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본교의 제주 플로깅은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활동이다. 올해 생생한 활동을 듣기 위해 플로깅에 참여한 학우와 이야기를 나눴다.

[학우 인터뷰] - 최원석 (미용2 26)

Q. 올해 제주 플로깅 활동에 참여한 계기는?

A. 이번 학년도에 입학하고 처음 겪는 긴 휴식 기간을 보람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시도해 보지 않았던 플로깅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참여했습니다.

Q. 플로깅을 진행하며 환경이나

쓰레기 문제의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A. 처음에는 제주도를 그저 가기 좋은 관광지이자 관리가 잘돼 쾌적한 공간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니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쉽지 않고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Q. 4박 5일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A. 4박 5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선배·친구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현지인들과 소통했습니다. 유의미한 경험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환경보호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면?

A. 이번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봉사활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제가 생각하는 봉사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싶습니다.

이번 제주 플로깅은 학생들이 직접 제주 곳곳을 걸으며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단순히 관광지로 바라보던 제주를 직접 정화하며 환경문제를 가까이에서 경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작은 쓰레기 하나를 줍는 행동에서 시작된 이번 활동이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일상 속 환경보호와 봉사활동에 관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손서연 수습기자

<seoyeon802@skuniv.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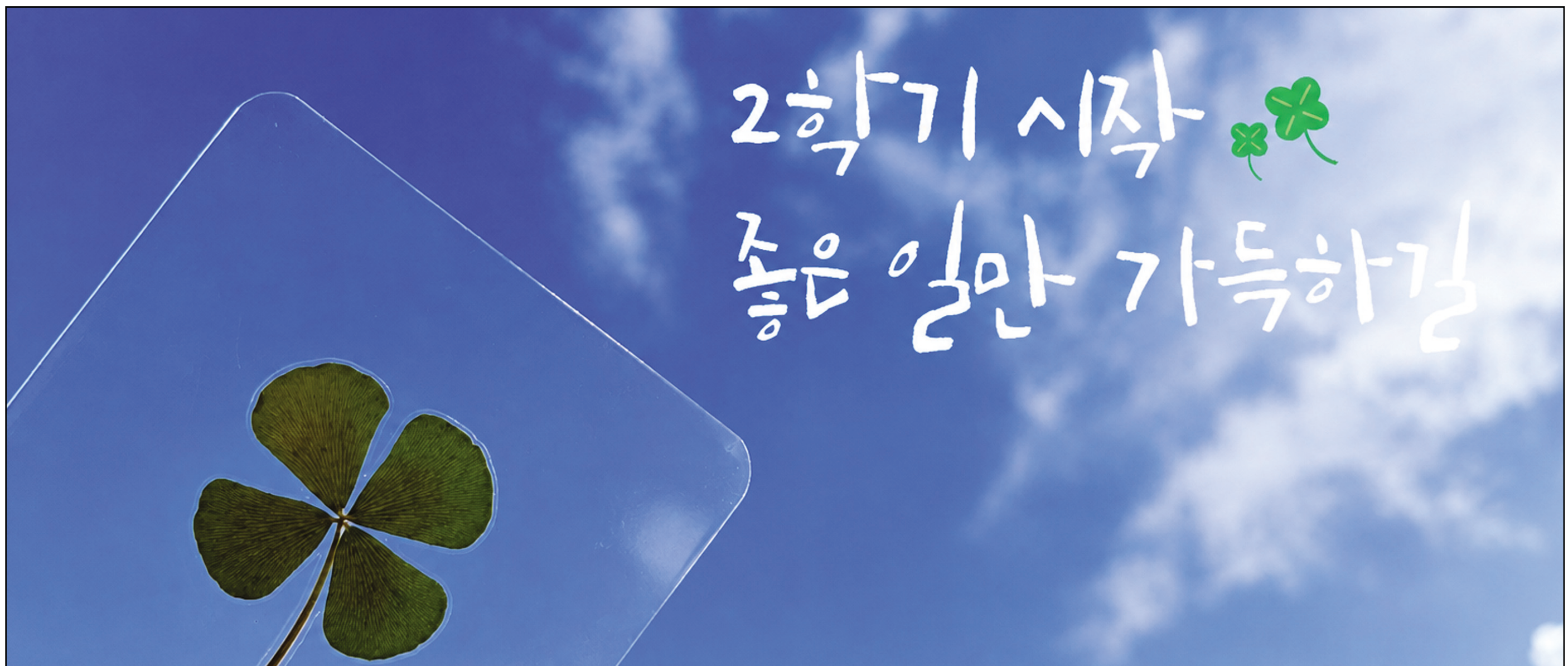
사 령

9월 16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면합니다.

▶ 면 수습기자	황세빈 (미용1 25)
▶ 임 사회부장	김나연 (일 어 23)
▶ 임 정 기 자	전준혁 (광흥콘 23)
▶ 임 수습기자	연송은 (미용1 25)
▶ 임 수습기자	황예빈 (자 전 26)

알 림 장

9월 1일	2026학년도 2학기 개강
9월 1일 ~ 7일	2학기 수강신청 정정
9월 24일 ~ 25일	추석연휴(*휴일)
9월 29일	수업일수 1/4선
9월 30일	학기개시 30일



도쿠시마에서 만난 한일 대학생들… 문화로 이어진 교류



▲ 출처 : 학교 제공

우리대학이 일본 도쿠시마현과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글로벌 서포터스를 파견했다. 서포터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도쿠시마현을 방문해 현지 문화·관광자원을 체험하고 일본 대학생들과 교류했으며, K-Beauty 등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본교 국제교류처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MOU 체결을 기념해 K컬처(K-Beauty, fashion)와 도쿠시마현의 관광매력을 알릴 'SKU 글로벌 서포터스'를 모집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현지 문화 체험과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SNS를 통해 도쿠시마의 관광매력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서포터스는 도쿠시마에 도착한 첫날 도쿠시마현 대학과의 교류회에 참가했다.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섞여 조를 구성해 자기소개와 전공 소개 등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서포터스로 참가한 김나연(일어 23) 학우는 “처음에는 어색해서 눈인사만 할 정도였다. 하지만 자기소개로 시작해 전공을 소개하고, 무대를 함께 보며 웃으니 나중에는 SNS로도 인연을 이어갈 정도로 친해졌다”며 “헤어지는 게 아쉬울 정도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음 날에는 오츠카국제미술관과 나루토해협 등을 방문하며 도쿠시마의 관광·문화자원을 체험했다. 특히 나루토해협에서는 소용돌이 관람전에 답습해 거대한 조류 소용돌이를 가까이에서 관찰했다. 김 학우는 나루토해협을 가장 기억에 남

는 활동으로 꼽으며 “거대한 조류 소용돌이가 바로 옆을 배를 타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놀라운 자연의 신비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좋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소도시의 매력을 확실히 알게 됐다”며 “서포터스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갔는데 도쿠시마 측에서 환대에 주시고 여러모로 챙겨주셔서 도쿠시마를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8월 3일에는 도쿠시마 이온몰에서 K-Beauty 시연 행사가 진행됐다. 학생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한 가운데 학생과 교수진이 돌아가며 메이크업과 네일아트를 시연하며 한

국의 뷰티 문화를 현지에 소개했다. 마지막 날에는 아와오드리 회관을 방문해 아와오드리 공연을 관람하는 등 도쿠시마의 전통문화를 체험한 뒤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포터스는 4일간 도쿠시마의 관광·문화자원을 직접 경험하는 한편 현지 대학생들과 교류하고 한국 문화를 소개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진로 고민 · 취업 고민, 동아리와 함께 해결하자!

2026학년도 2학기 진로 동아리 모집

2026

모집 인원

- 최대 145(팀별 2~6명)
- * 개별 신청 가능, 팀 헌정 배정
- * 개별 신청 인원 2인 이하 시 신청 불가

모집 일정

- 지원 기간: 2026.08.19 ~ 09.16
- 동아리 선발: 2026.09.18(금)
- 동아리 O.T.: 206.09.22(화)
- * 실제 활동 날짜 및 배정 위치

지원 대상

- 서경대학교 재학생
- 전공 무관 / 신입대학생 모두 지원 가능

2026학년도 2학기 취업동아리 모집

동일직무 / 자기소개서·면접 / 기업 및 직무분석 등 희망 분야별로 운영하는 자율 동아리

접수 기간

2026.08.18.(화) ~ 09.16.(수)

9.10.(화) 오전 10시까지 신청서류 제출

선발 일정

2026.09.17.(목)

OT 일정

2026.09.21.(월)

지원 혜택

- 동아리별 활동비 지원 30만원
- 진로 키워드 경진대회 우수자 상금 지급
- 비교과 포인트 10포인트 제공 (자기개발역량 50%, 공동체역량 50%)

지원 방법

지원서 이메일 제출(byeon@skuniv.ac.kr) 또는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방문 제출

~ 지원서 양식: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 확인

문의: 02-940-2975

신청방법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jpr123@skuniv.ac.kr) 또는 진로취업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방문 제출(유첨권 9명)

모집기간

2026.09.21.(월) ~ 11.27.(금)

- * 취업동아리 OT: 9.21.(월) 예정
- * 면접 공인대회: 11.27.(금)

모집대상

- * 재학 중인 학생 2학년 ~ 4학년
- * 최대 13명 (팀별 2-8명)

▲ 출처 : 진로취업처

우리대학 진로취업처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진로동아리와 취업동아리를 모집한다.

진로동아리는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동아리다.

진로동아리를 통해 참가자들은 △자기 탐색 △진로 로드맵 작성 △진로 탐색을 통해 학년별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026학년도 2학기 진로동아리는 8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해 9월 18일 최종 선발한다. 선발자들은 9월 22일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후 11월 27일에 열리는 성과 발표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진로동아리 참여자들에게는 의무사항이 따른다. 매월 2회 이상 동아리 자체 오프라인 활동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활동비를 지원받으려면 동아리 내부 프로그램과 교내 진로·취업 프로그램에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격주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유선 또는 대면 보고 이후 회의록 제출 일자를 확정하고 동아리 활동 회의록과 지출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 진로동아리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동아리별 활동비 30만원 △비교과 포인트 10포인트 △진로 탐색 원데이 워크숍 특강 및 현장자멘토링이다. 취업동아리는 동일한 직무 및 직종의 취업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취업 정보 공유와 학습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는 동아리다. 취업동아리는 진로동아리와는 달리 취업에 집중하는 형태의 동아리이기 때문에 2학년부터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취업동아리는 8월 18일부터 9월 16일 오전 10시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9월 17일 최종 선발한다. 선발자들은 9월 21일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고 11월 27일 진행되는 면접 경진 대회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취업동아리 참여자에게는 다양한 의무 사항이 부여된다. △매월 2회 이상 자체 오프라인 활동 진행 △매월 취업동아리 활동 보고서 제출 및 점진 △면접 집중지도 프로그램 참석 외에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의무 사항이 존재한다. 취업동아리 참가자들은 △기업 및 직무분석 가이드 특강 △동아리별 활동비 30만 원 △면접 집중지도 프로그램 △비교과 포인트 10포인트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진로동아리와 취업동아리 모두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유첨권 9층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승윤 기자
(organicggfry@skuniv.ac.kr)

교과를 넘은 역량을 기르기 위한 첫걸음

2026학년도 2학기 비교과 서포터즈 모집

우리대학 창의산학교육원에서 2026학년도 2학기 비교과 서포터즈(이하 비교과 서포터즈)를 3~7학기 재학생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총 12일간 모집했다. 신청과정은 비교과 서포터즈 모집 공지사항에 첨부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 진행했다. 신청자들은 지원서를 작성하며 △인적 사항 △지원 이유 △비교과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것 △선발 후 어떤 온·오프라인 콘텐츠

를 제작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자유롭게 답변했다. 또 관련 경험 및 역량에 관한 질문에서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했다. 이후 서류 합격자들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면접에 참여해 최종 선발됐다. 비교과 서포터즈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양한 교내 비교과 홍보 활동을 담당한다. 비교과 프로그램 △SNS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오프라인 홍보활동 △운영 지원

△홍보 및 기획 등 넓은 범위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홍보한다. 이 외에도 직접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회를 가진다. 일례로 창의산학교육원 대동계 부스에서 진행된 비교과 밋고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미션을 수행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 동시에 진행된 BPTI(B(비교과) Program Type Indicator)는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8가지 BPTI 유형 중 자신의 유형을 발견하고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추천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참여자가 △활동동 스타일 △도전 방식 △관심 방향에 관한 질문에 A, B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 답변하면 자신의 BPTI 유형과 추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선발된 서포터즈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서포터즈 장학금 △창의산학교육원장 명의 활동 인증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유승윤 기자
(organicggfry@skuniv.ac.kr)



▲ 출처 : 창의산학교육원

우리대학 학생회가 주최하는 2026 DANCE ON SKON - 서경댄스퍼포먼스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이 시작됐다. 참가팀은 각 팀의 개성과 특색을 담은 자신들만의 퍼포먼스를 준비해 예선에 참여할 수 있다. 본선에서는 예선을 통해 선정된 팀들이 준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팀이 각자의 개성을 담아 공연을 펼쳐, 서로 다른 매력의 무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경연대회는 9월 30일(수)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문예홀에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9월 15일(화) 자정까지 구글 폼으로 접수한다. 참여 대상은 우리 대학 학생이라면 모두 참여 가능하다. 2인 이상 팀을 구성해 비전공자 1명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팀 구성이 어려운 학생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별 신청자는 솔로로 참여하거나 팀으로 나가고 싶다면 학생처에서 팀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팀 매칭을 희망해도 신청 현황에 따라 진행되기에 매칭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비전공자 개인 무대는 심사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평소 춤에 관심이 있거나 혼자 하기 망설여졌던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상금도 증정될 예정이다. 대상 1팀에게 100만 원, 우수상 2팀에게 각 50만 원, 장려상은 2팀에게 각 2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이번 행사는 재학생 참여 확대를 위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유형에 따라 FYP 포인트 및 비교과 포인트도 지급할 예정이다. 문예홀에서 진행되는 본선은 우리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본선 시작 30분 전부터 수용 인원 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또, 다양한 팀이 각자의 개성을 담아 공연을 펼쳐, 서로 다른 매력의 무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다. 관람객을 위한 현장 이벤트 및 경품 추첨도 진행될 예정이니 즐거운 관람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외에 참가 및 관람 사항은 총학생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희린 수습기자
(pphhrr0904@naver.com)

한 눈에 보는 이슈

정치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통과...
수사 지연·피해자
보호 대책이 관건

경제

위기의 JTBC,
4,200억 빚더미 속
기업회생 신청

사회

AI 합성 음란물,
무죄 판결이 던진
처벌 공백

문화

문화산업 고질병
'암표', 이제는
잡을 수 있을까?

연예

'선한 영향력'은
왜 역풍이 됐나...
박위 KTX CCTV
공개 논란

스포츠

"목표는 일단 3위"...
한국 스포츠,
아시안게임서 일본과
격차 좁힐까

자세히 보는 이슈

검사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통과… 수사 지연 · 피해자 보호 대책이 관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954년 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 이번 법률 개정의 핵심은 법조문 내에 규정되어 있던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송치사건의 직접 보완수사권 조항을 전면 삭제한 점이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전면 제거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이원화한다.

개정된 법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형사소송법상 검사에게 부여됐던 직접 수사 개시 및 사건 인지 관련 규정이 전면 삭제됐다. 또한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직접 2차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던 권한이 폐지됐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 지휘 및 협력 절차가 일원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 조직은 향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및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는 공

소청으로 기능과 조직이 분리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대립되는 시각은 다음과 같다. 제도 개혁 추진 측은 단일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함으로써 권한 남용 및 표적 수사의 구조적 원인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판이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무리한 기소를 예방하는 사법적 견제

와 균형을 확립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법조계 일각 및 반대 측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금지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 간에 사건 서류가 지속적으로 재이송되는 이른바 ‘핑퐁 수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수사 지연이 심화될 경우, 그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은 고스란히 사건 관계인과 범죄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특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아동 · 성폭력 범죄 등 신속한 권리구제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인 민생 범죄 수사 현장에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러한 현장의 우려와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후속 대책 및 보완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차 수사 및 보완수사 이행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경찰청은 전국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보완수사 전담 인력 2,700여명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재편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또한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의자 및 피해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해당 보완수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적 기한과 규정을 법제화했다. 이와 함께 수사 및 기소 전 과정에서 피해자 면담청구권, 사건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 등 피해자 목소리가 사법 절차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자 권리 보호 대책 마련 조치가 지속적으로 논의 및 시행되고 있다.

황세민 수습기자
(hsub061207@gmail.com)

위기의 JTBC, 4,200억 빚더미 속 기업회생 신청



▲ 출처 : JTBC홈페이지

종합편성채널 JTBC가 채무 불이행 선언에 이어 이틀 만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JTBC는 지난 6월 12일 만기가 돌아온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황을 선언했다. 이러한 자금난의 배경에는 콘텐츠 제작과 중계권 확보 등을 위해 차입금이 크게 증가한 점이 있다. 차입금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2,477억 원에서 4,274억 원까지 증가했다. 이후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을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다들트에 빠졌다. 이에 JTBC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런 JTBC 자금난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다. 대규모 콘텐츠 투자와 수익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월드컵 중계권 확보는 JTBC 자금난의 큰 요인이 됐다. 실제로 JTBC는 지난 2월 밀라노 · 코르티나답페초 동계올림픽과 현재 진행 중인 북중미 월드컵에 이어 2032년까지 열리는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며 스포츠 콘텐츠 중계권에 크게 투자했다. 여기서 투

입된 중계권료만 약 7,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에 JTBC는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재판매해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2026년 밀라노 ·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재판매 협상이 결렬돼 JTBC가 단독 중계했고, 북중미 월드컵 역시 MBC · SBS와는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KBS에만 140억 원에 중계권을 재판매했다. 이렇게 중계권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해 재정 부담이 커졌다. 또 다른 문제로 JTBC가 SL(스튜디오 톨루랄라)라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콘텐츠 사업을 재편한 것이 있다. JTBC는 SL에 주요 콘텐츠 IP를 넘겨왔다. 당시 JTBC는 누적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아는 형님〉 등 279개 프로그램의 IP를 약 433억 원에 SL에 넘겼다. 이후 해당 콘텐츠가 흥행하더라도 발생하는 IP 수익을 직접 가져가기 어려워지며, 부가 수익이 JTBC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됐다. 하지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해서 JTBC가 당장 문을 닫는 것은 아

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간에 걸쳐 빚을 나누어 갚아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구조조정 절차이다. JTBC는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적용을 요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를 승인하면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보류된 상태다. 또한 회생절차 신청 이후, 일부 프로그램의 출연료와 제작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방송 관계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JTBC에 공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JTBC는 지난 7월 8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지급된 파견 수수료와 용역료, 일부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료 및 외부 제작비 지급을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JTBC가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이번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목이 쏠린다.

박희린 수습기자
(pphhrr0904@naver.com)

AI 합성 음란물, 무죄 판결이 던진 처벌 공백

AI 음란물 제작·배포 시 적용되는 법률		
관련 법	처벌 대상	형량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 (일명 ‘딥페이크 처벌법’)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합성·가공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실존 인물 대상이어야 적용 하점
청소년성보호법 11조 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만 규제 하점

▲ 출처 : 동아일보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에서 검찰이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I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 형태가 등장하며 현행 법의 처벌 범위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실존 인물뿐 아니라 AI로 가상인물을 만들어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며 법적 공백도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얼굴 ·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 반포 행위를 처

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영상 속 인물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 적용이 어렵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AI로 제작된 여성 의 나체 사진을 텔레그램에 공유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진 원본이나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은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선고된 성적 합성물 관련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일부 또는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최소 1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합성물에 등

장하는 실존 인물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얼굴은 아동이지만 합성된 신체는 성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다. 둘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만 6건이었다. 문제는 AI 기술이 실존 인물을 합성하는 수준을 넘어 가상 인물까지 만든다는 점이다. 동아일보는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성인 AI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법률상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법률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을 규제하는 현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 인물이 나 표현물을 성적으로 제작 · 편집 · 합성 ·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에 발의됐으며,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시작했다. 다만 가상 인물까지 성폭력처벌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논쟁이 있다. 실제로 법원 행정처 역시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인물을 해당 법안의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이번 무죄 판결이 던지는 질문은 ‘AI 음란물을 처벌해야 하는가’에 그치지 않는다. 실존 인물이 대상인 딥페이크부터 가상 인물을 생성한 성적 영상물까지 범죄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법의 한계 안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보다, 피해자 보호와 처벌 범위의 적정성을 함께 고려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손서연 수습기자
(seoyeon802@skuniv.ac.kr)

문화산업 고질병 ‘암표’, 이제는 잡을 수 있을까?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 시행



문화예술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암표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표를 되파는 암표는 관람객의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공정한 관람권 구매 기회를 빼앗는다. 이에 2월 27일 개정된 「공연법」이 지난날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암표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되파는 행위를 암표 매대로 규정하고 범칙금을 부과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온라인 암표를 단속하기 위해 공연예술과 프로스포츠 분야에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주요 예매처와 협력해 예매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해왔다. 하지만 기존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국회도서관 「Data & Law」통권 제44호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예술 분야 암표 신고 1,649건 중 실

제 조치가 가능한 유효신고는 143건으로 8.7%에 그쳤다. 프로스포츠 분야 역시 유효 신고 비율이 6.3%에 불과했다. 특히 온라인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고, 표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방식도 다양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 또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 판매 단속에 집중해 그 외 방식의 부정 판매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역시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 부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연 및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 구매’, ‘부정 판매’ 정의 및 금지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가액 추정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입장권 판매업

자의 부정 판매 방지 조치 의무화 이번 개정법은 암표의 판매뿐 아니라 구매까지 규제 범위를 넓혔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부정 행위를 금지한다. 부정 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자신 신고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참고: 스포츠조선]. 실제 암표 구매 경험이 있는 조서윤(23 · 가명)씨는 지난 7월 인기 아이돌 그룹 C의 공연을 위해 정가의 세 배 수준을 냈다. 조 씨는 “암표가 공연 문화에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금전적 부담도 컸지만, 꼭 가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인 확인 제도와 암표 관련 법이 강화돼도 은밀한 거래까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암표 근절을 위해서는 “국내 멤버십 회원에게 사전 예매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관람을 원하는 일반인을 위한 입장권 구매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법 개정만으로 암표가 사라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법 개정과 더불어 예매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차단,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각 기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암표 근절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협의체가 문화산업 암표 근절을 위한 상시적 협력 구조이자 실질적 실행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아이들이 주로 찾던 장난감 가게에 어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말랑이를 손으로 꼭 눌러보거나 진열된 키팅과 피규어 등을 살펴보는 이들 가운데 20·30대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장난감은 어린이를 위한 놀이도구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성인이 직접 자신이 사용할 장난감을 고르고 구매하는 모습이 하나의 소비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말랑이, 악뽀뽀, 키팅 키팅 등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의 형태도 과거와는 다르다. 어린이가 가지고 노는 전통적인 장난감뿐 아니라 가방이나 파우치에 달거나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하는 제품까지, 장난감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관련 상품이 공유되고 새로운 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소비자들

이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직접 상품을 보고 만져보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모습도 나타난다. 특히 서울 종로구 창신동 완구거리처럼 오랫동안 장난감과 문구류를 판매해 온 공간이 젊은 소비자들의 방문으로 다시 주목받으면서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개인의 취향을 넘어 하나의 소비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린이와 부

모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완구시장의 소비 주체가 2030, 어쩌면 그 이상까지로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인들은 왜 다시 장난감을 찾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이들의 장난감 소비는 개인의 소비 행태를 넘어 오프라인 공간과 완구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고 있을까. 2030 세대의 장난감 소비가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풍경을 들여다봤다.

슬라이

“만지고, 뽑고, 추억하고” 2030 장난감 소비 트렌드



최근 2030 세대 사이에서 장난감은 단순한 유년 시절의 향수를 넘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새로운 취미 활동이자 정서적 안식처로 자리 잡았다. 과거 어린이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장난감에 이제는 2030 성인 고객들이 줄을 서고 열광한다. 이러한 ‘키덜트(Kidult)’ 트렌드의 중심에는 촉각 장난감, 랜덤 장난감, 레트로 장난감이 있다.

촉각 장난감은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힐링 아이템이자, 최근 2030 세대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장난감이다. 대표적으로는 손으로 주무르는 말랑이(스퀴시), 악뽀뽀 그리고 특유의 타건감을 주는 키팅 키팅 등이 있다. 말랑이와 악뽀뽀는 쥐어짜고 주무르는 단순한 동작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양한 타건감과 경쾌한 ‘팔 짹’ 소리를 주는 키팅 키팅 역시 심신을 안정시키고 잡생각을 털어주는 용도로 확인되

며, 멘탈 힐링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서현(경향 22) 학우는 “시험 기간이나 과제 때문에 밤을 새울 때 말랑이가 유용하다”며 “아무 생각 없이 만지다 보면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이 비워지고 스트레스가 확 풀려서 공부에 집중하기 좋아진다”고 전했다. 이어 “말랑이마다 질감이 다양해서 집중이 안 될 때 골라 만지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덧붙였다.

장난감 소비의 또 다른 주축은 뽑기(가차)나 블라인드 박스 중심의 랜덤 장난감이다. 소비자들은 내용물을 미리 알 수 없는 상자를 열 때 느끼는 불확실성과 기대감 자체를 오락으로 소비한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고가의 명품 구매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에서, 랜덤 장난감은 수천 원에서 1만 원 안팎의 적은 비용으로 즉각적인 도파민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이에 2030 세대에게 부담 없는 작은 사치이자 일상의 활력소로 기능하고 있다.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나가다 가차가 보이면 하나씩 뽑아보게 되는데, 캡슐을 열면서 무엇이 나올지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며 “한번 결제할 때 가격 부담이 적어 취미로 정착했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 부담이 적어 친구랑 저렴하게 우정 아이템을 맞추기 좋다”고 전했다.

과거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유행했던 고전 완구들의 부활 역시 두드러진다. 다마고치, 수호천사 엔젤이 등이 다시 출시되며 청년층의 지갑을 열고 있다.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사야 했던 장난감을 이제는 스스로 번 돈으로 마음껏 소장할 수 있다는 보상 심리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다마고치나 엔젤이 키팅을 가방에 매달아 레트로 감성을 뽐내며 과거의 추억을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 소품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다.

30대 직장인 B씨는 “수호천사 엔젤이의 팝업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라 방문했다”며 “가장 좋아하던 캐릭터라 오랜만에 보니 반갑고 설렌다”고 전했다. 이어 “추억 속에 있던 엔젤이를 다시 보니 어렸을 때의 순수한 마음이 떠올라서 구매를 망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어른이’가 된 2030, 장난감 소비 문화를 바꾼다

장난감, 소비를 넘어 새로운 경험과 시장을 만든다

말랑이와 악뽀뽀, 키팅 키팅 등 손을 움직이며 가지고 노는 장난감인 ‘피젯 토이(Fidget Toy)’의 유행이 청년층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난감 판매량 증가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장난감을 경험하는 방식과 오프라인 공간의 역할, 완구시장의 소비층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



▲ 출처 : 이데일리

이러한 2030의 방문은 서울 종로구 창신동 완구거리 같은 기존 침체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소상공인 365 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4월 창신동 완구거리 내 주요 완구점을 중심으로 반경 70m 이내 ‘장난감 소매업’의 월평균 매출은 전월 대비 18% 증가한 1,592만 원을 기록했다. 연초 1월(653만 원)과 비교하면 2, 3월을 거치며 매출이 크게 뛴 셈이다.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오프라인 점포가 위축되던 상황에서, 장난감을 찾는 젊은 소비자의 유입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장난감을 사러 온 소비자들이 주변 식당과 카페까지 이용하면서 지역 전체의 유통 인구와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완구시장 자체 소비자층이 넓어졌다는 점도 긍정적 변화 중 하나다. 과거 완구시장의 주 소비자가 어린이와 학부모였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지갑을 여는 2030 세대도 주력 소비자로 부상했다.

이처럼 청년층의 장난감 소비는 장난감이라는 작은 상품을 넘어 소비 공간과 지역 상권, 완구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어린이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장난감이 2030 세대를 만나 오프라인 매장에는 ‘체험’이라는 가치를, 지역 상권에는 ‘유통 인구’를, 완구 산업에는 ‘성인 소비층’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선물하고 있다.

다마고치

장난감은 이제 단순한 어린이용 완구를 넘어 2030 세대의 감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문화 소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소비 공간과 지역 상권 그리고 완구 산업의 온도를 바꿨다.

이제 장난감은 침체됐던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외됐던 완구 산업 전반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어릴 적 추억을 되찾고자 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잊힌 공간을 재생시켰다. 또한 완구 산업을 아동용 시장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성인까지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문화 산업으로 확장시켰다. 정서적 위안을 찾는 청년들의 수요와 시장의 공명이 맞물리며 일궈낸 문화적 변화는, 일상 속 작은 위안이자 새로운 경제적 선순환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하지만 화려한 확장 뒤에 숨은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하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해외직구나 유통과정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들은 화학물질 남용이나 물리적 결함 등 안정성 문제를 끊임없이 초래한다. 만 14세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안전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 역시 비일비재하다. 또한, 한정판 마케팅과 리셀 시장이 결합하면서 생겨난 과소비 현상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희소성에 집착해 경제적 범주를 넘어서는 과도한 지출 등은 장난감이 줘야 할 본연의 정서 만족감을 오히려 오염시키고 있다.

장난감이 전해주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순수한 동심의 회복과 일상의 작은 기쁨이다. 그 가치는 안전의 부재나 과도한

산업주의에 의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의 자율적인 경각심이 더해질 때 비로소 장난감은 단순한 유행이나 과소비의 대상을 넘어선다. 오늘날 2030 세대가 손에 쥔 장난감은 청년들의 따뜻한 심터이자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2030 세대가 이끄는 완구 소비가 성숙하고 바람직한 일상의 소비 문화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장난감이 제공하는 위로… 2030 세대의 소비심리

2030 세대가 장난감을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 해소이다. 학업과 취업 준비, 직장생활 등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욕구가 장난감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말랑이와 키팅, 스트레스볼 등 촉각 장난감은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단순한 행동을 반복하며 짧은 시간 동안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일종의 ‘힐링 아이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촉각 장난감의 열풍에는 신체적 이유도 있다. 손에 가해지는 자극은 자율신경계에 작용해 심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자율신경계는 근육 긴장, 호흡 등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한다. 따라서 감각신경이 밀집된 손바닥에 반복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교감신경의 흥분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안정감이 생긴다[참고: 웰스조선]. 촉각 장난감은 단순한 힐링에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촉각 장난감의 열풍을 젊은 세대의 외로움과 불안감과 연결해 설명했다. 임 교수는 촉각이 정서 안정과 밀접한 감각이며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을 반복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얻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촉감 완구만으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의존하거나 몰입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참고: 머니투데이].

장난감 소비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는 심리와도 연관성이 있다.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경험하고자 하는 모습이 장난감 소비 전반에서 나타난다. 2030 소비자들은 과거에 갖고 놀던 장난감이나 당시 유행했던 캐릭터 상품을 재구매하며 익숙한 즐거움을 되찾는다.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며 당시의 즐거웠던 기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고, 이러한 감정이 현재의 구매 욕구를 높인다. 장난감이 단순한 놀이 용품을 넘어 과거의 감정과 추억을 되새기는 매개가 되는 것이다.

경제적인 요인도 장난감 소비를 이끈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은 큰돈이 드는 여행이나 여가 활동보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확행’ 소비를 선호하고 있다. 장난감은 제품에 따라 가격대가 다양하고, 한번의 구매만으로 즉각적 만족을 얻을 수 있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랜덤 장난감처럼 소액으로 새로운 상품을 기대하고 개봉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 소비는 이러한 경향과 맞닿아 있다. 높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일상의 지루함이나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 있다는 점이 장난감 소비를 지속시키는 요인이다.

결국 2030 세대의 장난감 소비에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려는 심리적 욕구와 함께 적은 비용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경제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장난감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바쁜 일상에서 잠시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즐거움을 얻는 소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귀여움에 가려진 ‘안전’과 ‘절제’, 어른의 장난감엔 기준이 없다

장난감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안전이다. 관세청이 지난해 짝퉁 물품 6,443점 중 250점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스카스제 스냅 스카드롬이 기준치를 넘겼다. 특히 카드롬은 생체 내 축적 시 독성이 매우 크며,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국내 유통 제품도 안심하기 어렵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 완구·학용품 등 국내에서 유통된 1,008개의 제품을 조사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50개 제품에 수거 명령을 내렸다. 해외 플랫폼에서 온 물건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제품 29개를 검사했다. 그중 10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몇몇 키팅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549배 초과 검출됐다.

문제는 제도의 빈틈이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을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 특별법은 제품이나 포장 표시를 심사하기 때문에, 성인을 겨냥한 피규어와 열쇠고리라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영에 인 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같은 지적을 짚었다. 이 교수는 “어린이에게 유해한 물질은 성인에게도 유해하다”며 “연령 구분만으로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참고:조선비즈]. 물론 규제를 늘리는 일이 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성인용까지 KC인증을 의무화하면 업계 반발이 크다며 규제 강화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했다[참고:조선비즈].

한편, ‘어른들의 힐링’이라는 포장지는 위험한 과소비를 가리기도 한다. 팩을 뜯기 전까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완구는 본질적으로 사행성 상품에 가깝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 정보 공개를 강제하고 나선 배경 역시 이 같은 도박성을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켓몬 카드는 일부 회귀 카드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며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 된다. 취향을 수집한다는 명분은 사라지고 시세 차익을 노린 탐욕만 남은 시장에서 뒤늦게 뛰어든 청년층은 고스란히 빚과 손실을 떠안는다. KDI 경제 교육·정보센터는 과소비의 본질이 액수가 아닌 ‘소득 대비 지출 비율’이라 전했다.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쏟아부으며 요행을 바라는 소비는 더 이상 취미가 아니라 일상을 갉아먹는 중독일 뿐이다.

규제 논의는 이미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중국은 2023년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 블라인드 박스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8세 이상은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장난감은 값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다. 어떤 물질이 몸에 닿는지, 알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 소비자가 스스로 따져야 한다. 즐거움을 지키려면 KC 인증 확인과 예산 설정이라는 최소한의 방어선이 필요하다.



랜덤박스



▲ 출처 : 연합뉴스TV

악뽀뽀

문경새재에서 잉카마야까지...걸으며 발견한 문경의 문화

옛길 · 드라마 세트장 · 도자기 · 박물관을 따라 ‘걷고, 보고, 생각한’ 하루

지난 8월 7일 우리대학 청년문화콘텐 초기획단(이하 청문단)과 외국인 장학생 (GKS), 서경대신문 취재부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방문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

역문화탐방 프로젝트로,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문경시를 찾아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취재부는 문경새재길, 오픈세트장, 옛길박물관, 문경도자기박물관, 잉카마야박물관을 방문해 생생하게 그 현장을 담아 왔다.

수백 년의 역사를 품은 길 - 문경새재



경상북도 문경시와 충청북도의 경계, 백두대간을 넘는 문경새재는 조선시대 영남지방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였다. 새재는 '새도 날아서 가기 힘든 고개', '역새가 우겨진 고개', '하늘재(계림령)를 버리고 새로 만든 고개' 등 다양한 어원이 전해지고 있다. 다양한 어원 중에서는 세 번째 설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과거 고려시대까지는 계림령이 고갯길로 역할을 했었지만, 조선시대에는 새재가 주 통로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다. 새재는 태종 14년 관도로 개통된 이후 500년간 영남지방과 기호지방을 연결하는 경제·문화의 핵심 통로였다. 쌀과 소금, 포목과 종이 등 각종 생필품이 이 길을 통해 유통됐고, 지역 소식과 문화 역시 새재를 넘어 퍼져 나갔다. 동시에 새재는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의 최단 거리로써 중앙과 지방을 잇는 중심 통로였다. 새재의 역할은 단순한 통로에서 끝나지 않았다. 삼국시대 새재는 고구려의 남진을 막는 국경선이었으며 임진왜란 당시에는 왜군의 한양 진격을 저지해야 할 최전방

이었다. 임진왜란을 겪으며 조선은 방어 시설 보강을 통해 삼중의 관문 체계를 완성했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제 1관문 주흘관에 '영남제일관' 현판을 통해 길의 위용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다. 주흘관에서 제 2관문까지 이어지는 3km 구간은 평탄한 황토길로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었고 길 양 옆으로는 울창한 숲이 이어져 사계절 내내 산책하기 좋았다. 이어 제 2관문 조곡관은 약간의 경사가 시작되지만, 숲이 더욱 울창해져 여름에도 시원하다. 이 구간에는 마당바위, 무주암 등 역사적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 과거 선비들과 상인들의 흔적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고개 정상인 해발 642m에 자리한 제 3관문 조령관은 남과 북을 가로막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조령산과 주흘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백두대간의 장엄한 풍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특히 가을 단풍철에는 길 전체가 붉고 노란 잎으로 물들어 '한국 관광 100선' 1위에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길과 사람을 담아낸 문경의 역사 - 옛길박물관



새재길과 아와세트장의 구경을 마친 후,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초입에 자리한 옛길박물관을 방문했다. 문경은 조선팔도 고갯길의 대명사인 '문경새재'를 비롯해, 최고의 고갯길 '하늘재', 옛길의 백미이자 무역사로 일컬을 수 있는 '토끼바리' 그리고 유곡역 등 다양한 옛길이 교차하는 길의 고장이다. 옛길박물관은 이러한 문경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 건립된 박물관으로 옛길 위에서 펼쳐졌던 각종 문화상을 담아내고 있다. 1층 전시실로 들어서자, 선비들의 과거길을 재현한 괴나리봇짐이 시선을 끌었다. 괴나리봇짐은 겹쳐서 먼 길을 떠날 때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는 작은 짐이다. 봇짐 속에는 벼루, 책, 지도, 엽전 등이 주로 들어있었다. 시험을 앞두고 쟁긴 물품 하나하나에 당시 선비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듯했다. 전시품들을 통해 과거길을 걷던 선비들의 모습을 오늘날에도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었다. 괴나리봇짐을 지나 발걸음을 옮기면, 문경새재아리랑을 중심으로 아리랑의 역사와 음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문경새재아리랑의 곡조와 사설은 다른 지역의 민요에

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생활양식, 환경 등이 닮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경새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갯길의 대명사였기에 소재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이외에도 유곡찰방 비석과 같이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표지석, 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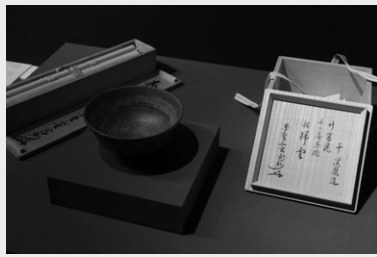
여지도 등 옛길 위에서 펼쳐졌던 각종 문화상을 찾아볼 수 있다. 2층 전시실로 올라가면 영상실을 제일 먼저 마주할 수 있다. 영상실에서는 한국의 고개, 영남대로 천리길, 한국의 역과 원 등 역사적 의미가 담긴 아름다운 길에 관한 이야기를 약 17분가량의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었다. 2층 바닥은 위성 사진을 그대로 투영한 문경의 길로 이루어져 있다. 바닥을 자세히 보며 문경의 옛 지도와 현재의 위성 사진을 나란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2층 전시실에서는 길 위에서 사람들이 사용했던 나막신, 지게 등의 다양한 문물들도 살펴볼 수 있다.



옛길박물관의 감동을 뒤로 하고, 문경의 여러 박물관으로 향했다. 처음 방문한 곳은 문경도자기박물관이었다. 문경과 도자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문경 도자기의 가치는 오늘날 이르러 더 주목받고 있다. 도예가의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문경 도자기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경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과 노동부에서 지정한 기능인 최고의 영예인 도예 부문 '명장'이 3명 있다. 조선조 분청사기 및 백자 도요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문경의 도자기에는 지금까지 옛 도공의 흔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전해진다. 문경 지역의 도자기는 민요로서 일상생활에 쓰임

박물관을 뒤로 하고 본 문경과 도자기의 관계

이 많은 도자기를 생산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을 내세워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미가 돋보인다. 사발, 대접, 접시, 종지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문경 도자기의 특징은 한국 도자기 역사를 관통하는 역사성과 전통성에 있다. 고려시대 청자에서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900년을 이어왔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화려하게 부활해 중요무형문화재와 명장을 배출시켰다. 이러한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문경도자기박물관에 다녀왔다. 이곳에선 관람뿐만 아니라 도자기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차한잔과 함께 전통 다례를 체험할 수도 있다. 본문을 통해 그 현장으로 가본다.



서민의 삶 품은 민요의 소박한 미학, 천년의 숨결 - 문경도자기박물관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자, 천년을 이어온 흙과 불의 기록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2002년에 개관한 문경도자기박물관은 고려청자부터 현대 도예에 이르는 문경도자기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현장이다. 1층 제1전시실에서는 동면 간송리와 가은읍 완창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청자 조각과 분청사기가 기자를 맞이했다. 화려함보다는 민중의 삶에 밀착했던 민요 특유의 소박함이 유물마다 묻어났다. 전시장 한편에 마련된 '문경 전통 망명이가마' 모형도 눈길을 끈다. 20~25cm 크기의 사람 장만치 모양인 흙덩이인 '망명'이 를 둥글게 이어 붙이고, 약 15도 경사를 따라 5~6개 칸으로 축조한 가마 형태는 문경 도예

의 독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어지는 제2전시실은 19세기 말 관요인 분원이 민영화된 이후의 역사를 다룬다. 산업화된 일본 자기가 확산하던 시기에도 지방 가마의 명맥을 지키며 서민의 생활 용기를 빛낸 근대 요업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2층 제3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기자, 국가무형유산 사기장과 명장들이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빛낸 현대 도예 작품들이 펼쳐졌다. 전시관을 벗어나 야외로 향하면 도자기체험장과 전통차실이 이어진다. 이곳에선 관람객이 직접 흙을 빚어 가마에 굽는 체험이 진행되며 배송으로 자신이 만든 도자기를 직접 가져갈 수 있다. 전통차실은 다례선생님과 함께 차 한잔과 전통다례를 경험할 수 있다. 문경 도예인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도 있는 판매장도 마련돼 있다. 박제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흙과 불을 다루며 오늘날의 일상과 끊임없이 호흡하는 문경 도자기의 생명력을 체험한 순간이었다.



문경의 도예 문화를 뒤로하고 가은읍의 시골길로 가다 보면, 옛 왕릉초등학교 자리를 재탄생시킨 '잉카마야박물관'이 모습을 드러낸다. 30여 년간 중남미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한 김홍락 전 대사가 수집한 유물들이 교실마다 빼곡히 채우고 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빼겨겨리는 낡은 목조 바닥의 소리는 시간을 거슬러 낯선 고대 문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묘한 물입감을 선사한다. 전시실에는 에콰도르에서 온 '피리를 부는 신상'과 '세 여인이 들고 있는 그릇', '재규어가 지고 있는 물장', '신상이 지고 있는 그릇' 등 찬란했던 잉카와 마야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작품들이 있었다. 취재 현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후원하는 '뮤지엄 이-음'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미술박물관의 특별 순회전 <다·다·다 - 다양한 생각, 다양한 상징, 다양한 표현>이 함께 열려 이국적인 깊이를

폐교 위에 핀 세계 문명 - 잉카마야박물관

더했다. '생각의 창', '상징의 창', '표현의 창'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꾸려진 전시는 인도의 심오한 철학과 종교관을 폐교 공간에 정갈하게 수놓았다. 먼저 '생각의 창: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 방에서는 우주적 춤을 추는 시바신 '나타라자'와 태양신 수리아를 담은 '마두바니 그림 <수리아>'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우주의 순환 원리와 공존의 철학을 엿보 뒤 이어진 '상징의 창'과 '표현의 창'에서는 '도르타 가네사' 금속공예 작품, 장인의 손끝에서 피어난 '칸타자수'가 기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시 관람에 이어 현장에서는 인도 전통 문양 도장으로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 신화적 상징과 기하학적 형태가 새겨진 목판 도장을 집어 들고 다양한 색상의 손수건 위에 염료를 묻혀 힘주어 눌렀다. 단원들은 각자의 개성을 담아 도장을 찍으며, 앞서 눈으로 감상했던 인도 장인들의 손끝 예술을 손수건 위에 직접 새겨 넣었다. 백두대간 품에 안긴 작은 폐교에서 아메리카의 잉카·마야 문명과 아시아의 인도 철학이 하나의 시공간으로 맞닿았다. 박제된 유물에 머물지 않고 관람객이 직접 손끝으로 교감하는 체험까지 더해진 현장은, 비어 있는 공간이 품을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의 가능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었다.

단원들의 시선이 머문 곳 - 청문단 & GKS 단원 인터뷰

문경새재길에서 시작해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지나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옛길박물관을 거쳐 문경도자기박물관과 잉카마야박물관까지 문경의 많은 장소를 둘러보고 배웠다. 다양한 장소 중 단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장소는 어디였을까.

Q.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연승은 청문단 단원).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이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를 재밌게 봤기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회를 선보여 지역문화 활성화에 정답을 제시하는 14기가 되겠습니다.

화 속 장면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마주하며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상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

A(황예빈 청문단 단원). 답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문경새재 옛길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한양으로 향하던 길을 직접 걸어보니,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문경새재도립공원에 오픈세트장에 재현된 전통가옥과 거리 풍경이 아름다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답사를 통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

던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A(Priti GKS 단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은 잉카마야박물관이었습니다. 인도 출신인 저에게 한국에서 인도의 문화를 접하는 경험은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함께 방문한 단원들에게 인도의 문화와 작품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직접 설명해 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전통은 물론, 다른 나라의 문화까지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본교 광고홍보콘텐츠학과 4학년이며, 2013년 3월에 창단한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이하 청문단)' 14기 단장 배현승입니다.

Q. 이번 지역문화 탐방 장소로 경북 문경시를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청문단에서는 해마다 지역문화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알려지기 전인 2025년 영월문화탐방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초대됐습니다. 문경은 선비들이 넘던 '문경새재'라는 역사적 장소와 창의적인 문화 공

간으로 탈바꿈한 패강 지역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문화적 결합을 눈으로 확인하고, 지역 소멸의 해안으로서 '청년과 로컬의 상상'을 직접 체험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Q. 단장으로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오전에 문경새재 길을 단원들과 함께 걸으며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문경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단원들 모두 처음 와보는 문경시에 대해 더 이해하려고 뒤통지 않고 견뎌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후에 박물관에

서 한 체험도 기억에 남습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잉카마야박물관'의 특별전으로 열리는 인도 전시회에서는 한국 단원들이 다양한 인도 문화와 잉카마야 문화를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단원 중 인도 학생은 자국의 문화 전시가 문경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는데, 이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Q.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의 역할과 청문단 14기의 다음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청년은 지역의 잊혀가는 자원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는 '연결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가 지



기고칼럼

남은 반년, 완벽함보다 나만의 속도로 달려갈 대학생들을 위한 응원

이복규 (문화콘텐츠학부 명예교수)

유난스러웠던 폭염에 시달리다 보니 어느새 2학기 개강이다. 1학기를 시작하며 했던 다짐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토익 점수는? 학점은? 자격증은? 그리고 어렵풋이 그려 두었던 진로의 방향은? 누군가는 계획대로 착착 나아가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처음 세운 목표가 아득히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흔들리는 자리에 서 있리라.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을학기를 시작하는 지금, 캠퍼스 곳곳에서는 벌써 취업 준비생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도서관 열람실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채워지고, 학교 게시판에는 인턴십 공고와 공모전 안내가 빼곡히 붙는다. 그 풍경 속에서 아직 뚜렷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학생들은 남들보다 뒤쳐진 것 같은 불안을 느끼기 쉽

다. 그러나 그 불안은 우리가 계를 러서가 아니라, 그만큼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맘때가 되면 유독 마음이 조금 해진다. SNS를 켜면 인턴십에 합격했다는 소식, 교환학생을 떠난다는 소식, 벌써 취업 준비를 끝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런 소식들 앞에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쉽게 자책에 빠진다.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왜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나?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자. 완벽한 계획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1월에 세운 목표가 8월에도 그대로 유효해야 할 이유는 없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관심사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을 앞에서 겹칠을 멈춰야 할 때도 있다. 그것은 실

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다. 남들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달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완벽주의는 얼핏 성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함정이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작조차 미루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다 보면 정작 앞으로 나아갈 힘은 점점 줄어든다. 세상에는 정해진 정답도, 모두가 따라야 할 하나의 속도도 없다. 4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늦게 도착하더라도 그 여정 자체가 실패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날마다 새로

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라(日新 又日新)”는 <<대학>>의 경구도 그것 아닐까? “참됨은 하늘의 길이 고, 참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라는 <<중용>>의 말씀도 마찬가지! 불완전한 인간은 그저 날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할 따름이다. 어제는 잃지 못했던 전공 서적 한 장을 오늘 읽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미루 두었던 자기소개서를 한 문단이라도 써 내려갔다면, 그것도 충분한 진전이다. 작은 실천들이 쌓여 우리를 완성시켜 간다.

남은 반년은 완벽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서툰지, 어떤 순간에 즐겁고 어떤 순간에 지치는지를 발견하는 과정 자체가 값진 경험이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다.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훗날 훨씬 단단한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러나 조금해하지 말자. 옆 사람의 속도에 나를 맞추려 애쓰지 말고, 나만의 리듬으로 걸어가자. 오늘 하루, 계획했던 일을 다 끝내지 못했더라도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한다. 대신 스스로에게 묻자.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남은 반년,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오늘의 작은 노력이 쌓여 만들어 갈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응원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을 모든 학생에게 진심 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결승선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자.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날, 지금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마주하며 미소짓기를!

|수습의 눈|

두써쿠, 켈리슈즈...이런 게 진짜 유행이 맞는 거야?

“이게 뭐야? 요즘 유행하는 건가? 나만 처음 보는 건가?” 요즘 SNS를 보다 보면 자주 이런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관심 없던 물건들이 반복해서 보이고, ‘요즘 다들 이런 걸 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러다 내 주변에서 물건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도 한번 구매해 볼까,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물건이나 음식들이 진짜 인기 있을까?

이 현상의 배경에는 우리가 관심이 있어하는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알고리즘이 있다. 콘텐츠 추천 기준은 우리가 선호하는 정보를 분석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사용자가 선호하

는 정보만 반복 접하는 현상을 ‘필터버블’이라고 한다. 분명 이 현상에도 장점이 있다. 관심 있는 정보를 직접 찾지 않고 알 수 있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도 빠르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보 편식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가짜 뉴스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내가 관심을 보인 정보가 계속해서 나타나다 보니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 느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소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특히나 SNS 인기 상품을 소비할 때 필터버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두바이 존드

쿠기’, ‘상하이 버터떡’ 등 새로운 디지털가 짧은 주기로 성행하는 모습이 있다. 이런 초단기 히트상품의 배경이 알고리즘이다. 특정 상품을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 이게 유행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결국 스스로 선택해 유행을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알고리즘이 깔아놓은 궤도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추천 시스템이 우리의 소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유행하는 것을 구매하는 것은 자발적인 내 선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필터버블, 즉 같은 상품을 반복적으로 접하는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SNS를 하면서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무언가를 소비하기 전에 ‘지금 SNS에서 유행하는 물건이니까 가지고 싶은 걸까?’ ‘이게 지금 나에게 필요할까?’를 한 번 더 고민하는 것이다. 또 내가 접하는 콘텐츠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유튜브에서는 원하지 않는 콘텐츠에 ‘관심 없음’이나 ‘채널 추천 안함’을 설정하고, 원치 않는 주제를 한번 클릭했다면 시청 기록에서 해당 영상만 찾아 지우는 것이다. 인스타그램 역시 설정 메뉴의 콘텐츠 선호 관여도 또는 관심 없음 탭을

통해 인스타그램이 인지하는 나의 관심 카테고리를 직관적으로 편집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많은 정보 속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주지만 반대로 자극적인 콘텐츠에 종속되게 할 수도 있다. SNS에서 본 콘텐츠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정보를 주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검색 기록을 지우거나 다른 주제를 직접 입력해 보며 추천 구조를 조절하는 주도적인 디지털 소비자로 거듭나야 한다.

박희린

수습기자
(pphrr0904@naver.com)

|독자의 눈|

신문사를 떠나며

지난 학기를 끝으로 3학기 동안 몸담았던 신문사 생활을 마쳤다.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다 보니 대학 생활을 잘해 낼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었다. 수업과 집을 오가는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하던 중 군복무를 같이 했던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 근황을 나누던 중 한 후임이 교내 신문사 활동을 추천했다. 그 역시 신문사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얼마 후 어저씨타임 게시판에서 우연히 신문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됐다. 갑자기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바로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면접 전형을 마치고 나서는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동문서답은 기본이었고, 전혀 직후라 군대식 말투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스스로 생각해도 면접을 너무 못 봤다. 그런 나에게 당시 편집장님은 기회

를 주셨다. 어렵게 잡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열정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수습기자가 되고자 했다.

군 복무 당시 행정병으로 일하며 문서 작성 능력을 키웠던 경험과 체계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신문사에도 적용하고 싶었다. 아이디어 회의에 대비해 회의 자료를 열심히 제작했고, 기사 아이디어도 최대한 많이 내려고 노력했다.

신문사에 애정이 생기면서 도발적인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다. 대학 신문은 점차 많은 이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권 주요 대학의 교내 언론은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학교 안에서도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5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신문사에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위치를 얻었을 때 우리 신문도 최소한 4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싶었다.

신문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부편집장이

됐고, 내가 생각했던 도발적인 목표에 다가서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문사보다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생기기 시작했다.

필자의 좌우명은 ‘기본이 태도가 되지 말자’다. 그러나 신문사에 대한 애정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좌우명을 스스로 어기기 시작했다. 마음이 떠나자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고, 어느 순간 나는 조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슬로건에 걸맞게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이번 학기를 끝으로 신문사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편집장님은 내년에도 필자의 행동을 함께 놓고 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저씨의 행동만 바라보던 시선이 그와 나 사이의

내년에도 함께하고 싶다는 것의 진심 어린 말에 다시 한번 신문사를 돌아보게 됐다. 그리고 열정 넘치던 수습기자 시절의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초심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부편집장이라는 직책에 걸맞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 조직에 쏟아부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결국 필자는 단지 조직 내에서 인원만 채우는 사람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신문사와 동료 기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에 신문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고, 화평 기자도 끝낼 수 있었다.

평소 인상 깊게 읽은 책 중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에는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런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는 내용이 나온다. 신문사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

들이 모인 곳이었다.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기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동료 기자들 곁에서 좋은 인생 선배이자, 능력 있는 기자가 되지 못했다. 특히 개인적인 우선순위가 달라진 이후에는 나의 태도가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충분히 돌아보지 못했다.

이 글을 통해 함께했던 기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3학기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신문사에서 보낸 시간은 분명 내 대학 생활에서 잊지 못할 한 페이지로 남을 것이다.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앞으로는 독자로서 신문을 읽게 될 것이다. 내가 함께했던 사람들과 새롭게 합류할 기자들이 만들어갈 더 나은 서경대신문을 기대한다.

김호성 /본교 미래융합학부 경영계열 25

※ 독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만/파/식/적

시작이 반이다, 나머지는 다시 서는 일

내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올해 할 일’이라는 메모장 파일이 하나 있다. 지난해 1월에 만들었고, 다섯 줄 남짓한 목록이 적혀 있다. AI 영상 공모전 참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시험, 주 2회 러닝. 반년 넘게 지난 시점에서 열어봤더니 실제로 손댄 항목은 한두 개 정도였다. 나머지는 그저 글로 남았다.

미룬 데에는 늘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했다. 공모전 기획안을 작성하다가 ‘이 정도로 될까’라는 물음이 먼저 떠올랐다. 그렇게 진행하다가 결국 노트북을 닫았다. 떨어지는 쪽보다 지원하지 않는 쪽이 덜 아팠다.

신문사에 지원할 때도 그랬다. 마감 하루 전까지 집에서 지원서 파일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다. 사진은 자신 있었지만 글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결국 마감 전에 제출 버튼을 눌렀다. 잘 써서가 아니라 더 미룰 시간이 없어서였다. 들어와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회의 아이디어가 반례되기도 했고, 좋지 않은 기사를 써 완전히 갈아엎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금 만파식적을 쓰고 있다. 시작하지 않았다면 실패할 기회조차 없었다.

이건 비단 내 이야기만은 아니다. 학교에서 만난 동기들도 비슷한 말을 한다. 휴학할지 말지 1년을 고민했다는 사람, 공모전 마감을 세 번 넘겼다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을 나중이라는 서랍에 넣은 사람. 대학생들에게 실패는 유독 비싸게 느껴진다. 학점과 이력서 한 줄이 곧 나를 설명하는 증명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고른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마이를 조던은 1997년 나이키 광고에서 자신이 놓친 수천 개의 숏과 놓친 결승골을 먼저 꺼냈다. 그리고 실패를 거듭했기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조던이 남긴 건 재능답이 아니라 반복담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은 절반을 해두면 나머지가 따라온다는 뜻으로 읽힌다. 나는 조금 다르게 본다. 나머지 반은 완주가 아니라 넘어진 뒤 다시 서는 일이라서 생각된다. 시작에 절반의 무게를 준 건, 두 번째 시작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닐까.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먼저, 목표를 잘게 쪼개 스스로 마감을 정한다. ‘공모전 참여’가 아닌 ‘오늘 밤 10시까지 지원서 제출’로 적는 식이다. 또한, 완성본 대신 초안부터 만든다. 준비는 시작한 다음에 따라붙는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기록으로 남긴다. 떨어진 이유를 적어두면 그 종이는 다음 지원서의 자료가 된다.

올해 메모장에는 두 줄만 적었다. 대신 그 두 줄은 오늘 손을 댈 수 있는 크기로 적었다. 여덟 줄을 남겨두고 한 해를 보내는 것보다, 두 줄을 시작하고 한 번 넘어지는 편이 낫다고 믿는다. 일단 하자. 넘어지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심화평 기자 (marksim@skuniv.ac.kr)

사설

‘쉬었음 청년’이 마주한 현실, 스펙 과도기에 이른 취업 시장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6년 1월 ‘쉬었음’으로 응답한 20~29세 청년은 44만 2,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인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들이다. 학문을 탐구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 대학생들은 학점 관리, 어학 성적, 자격증, 대외활동과 인턴십 등 스펙을 쌓아올리기 급급하다. 스펙을 차곡차곡 쌓아도 취업에 도달하지 못한다. 한창 구직활동을 할 시기에 일하지 않고 멈춰 있는 수십만 명의 청년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암울한 자화상이다.

그러나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냉담하다. 기성세대와 일부 언론은 청년들이 ‘게을러서’, ‘대기업만 취업하기를 원해서’ 혹은 ‘의지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개인적 문제로 치부한다. 청년들이 정말 내태해서 심을 선택한 것인가.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같은 현상에 마주하게 된 구조적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주요 대기업 및 IT기업들이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수시·경력 채용 위주로 전환했다. 고용노동부 및 주요 채용 포털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80% 이상이 ‘적부 유관 경험(인턴, 중고신입 등)’을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꼽고 있다. 신입 사원 합격자 중 다른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중고신입’ 비중이 30~40%에 달하는 실정이다. 경력을 쌓으려면 취업을 해야 하고, 취업을 하려면 경력이 필요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정규직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50~60%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 첫 직장이 중소기업일 경우 대기업으로 이직할 확률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한국 노동시장의 하향 이동 불가능 구조로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다니기보다 차라리 ‘준비나 휴식’을 택한다.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서가 아니라 첫 직장의 조건이 평생 경력을 결정짓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이다.

OECD 기준 한국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대학) 이수율은 약 69%로 세계 12위 상위권에 속한다. 반면 청년층이 원하고 학력에 부합하는 IT·전문직·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의 창출 속도는 대학 졸업자 배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한국고용정보원 분석에 의하면 청년층 구직 단념 및 ‘쉬었음’ 전환 사유 중 반복된 서류 탈락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이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스펙 인플레이션으로 입사 기준선은 끝없이 높아지지만, 합격의 문은 좁아져 반아웃을 부른다.

결국 청년들의 ‘쉬었음’은 내태함의 결과가 아닌, 문턱 높은 노동시장과 스펙 과열이 만들어낸 사회적 경고 신호다. 이제는 청년 개인에게 눈높이를 낮추라 채찍질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입 기회와 고용 안정망을 제공하는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청년이 꿈꾸기를 멈춘 사회에는 그 어떤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황세민 수습기자 (hsb061207@gmail.com)

※ 독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책

일상에 깃든 아름다움 – **내가 사랑한 공간들** 윤광준



▲ 출처 : 교보문고

언제부터인가 특별한 여행지나 유명 랜드마크보다 '아무도 모르는 곳', '감도 높은 공간'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유명한 장소가 아니어도, 감각 있는 공간들은 금세 사람들에게 퇴근하고 가 볼 곳, 주말에 가 볼 곳이 되어 일상에 스며들었다.

책 '내가 사랑한 공간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다. 작가 윤광준은 국내 20개 공간에 숨어 있는 아름다움을 글로 풀어냈다. 그에게 고급 빌딩이나 이름난 건축물만이 예술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가 매일 오가는 공간에서도 미학적 경험이 가능하다

는 것이 책의 중심에 놓인 생각이다.

책 속 '아름다운 공간'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리의 일상과 가까운 것, 그러므로 국내에 있을 것, 마지막으로 현대 도시인의 삶과 맞닿아 있을 것. 이러한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예상 밖의 장소들이 등장한다. 지하철역과 화장실부터 북한문화공간까지, 평범하게만 보였던 공간이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대표적인 예가 전철역이다. 흔히 지하철역은 교통시설 정도로 여겨진다. 하지만 책은 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녹사평역처럼 독특한 구조와 디자인을 갖춘 곳은 도시의 인상을 만드는 장소가 된다.

화장실에 대한 시선도 흥미롭다. 화장실은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공간 정도로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저자는 화장실을 홀로 사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바라봤다. 세면대의 독특한 배치라던가, 특수 유리를 통해 번기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등, 작은 설계 하나가 공간의 경험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에겐 제 기능에만 충실하면 될 일 아닌가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일상이 곧 우리의 삶이다. 삶이 메마르고 지루하지 않도록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줘야 한다"는 저자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인의 '휴식 공간'을 바

라보는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저자에게 "현대판 공원"이란 숲과 연못이 아닌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가운데에 길을 낸" 공간이다.

그 사례로 제시한 곳이 '스타필드'다. 고양과 하남 등 도심 외곽 지역에 들어선 스타필드는 쇼핑뿐 아니라 식사와 문화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기능한다. 건물 중앙을 비워 햇빛이 들어오도록 한 설계나, 높은 층수 대신 층당 면적을 넓힌 점 역시 이용자에게 개방감과 편안함을 준다.

이처럼 책은 미술관이나 공연장처럼 예술을 위해 만들어진 장소에만 미학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림과 음악이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지 않듯, 아름다움 역시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유명 랜드마크보다, 반복되는 일정과 익숙한 풍경 속에서 잠시 시선을 멈출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공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데 특별한 여행이나 깊은 미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 역시 아니다. 『내가 사랑한 공간들』은 멀리 떠나야만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질문을 던진다. 오늘 지나친 지하철역과 자주 찾는 카페, 동네의 건물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오늘의 장소

디지털 도시 속 심포를 짙는 공간 –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삼청동의 비탈길을 올라가다 보면 보이는 반가운 삼청공원 간판. 공원 안으로 조금 더 가다 보면 초록빛 나무들을 배경 삼아 고요히 자리한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을 만나볼 수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 아담한 결모습과는 다르게 높은 층고와 서까래, 이를 받치고 있는 나무 기둥과 하얀색의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룬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도서관의 모습이 반겨준다.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은 책을 읽으며 자연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 특화 도서관으로, 인간 중심의 미래

혁신 사례로 뉴욕타임스 칼럼에도 소개된 바 있다. 데이비드 섀스는 칼럼에서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이며, 최신 기술로 가득한 곳이다. 이 도서관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힐링의 장소로 특별히 설계된 곳"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마지막 부분에서 "혁신이 공원에 더 많은 도서관을 짓는 것이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도만 해도 종로구에는 구립 도서관이 하나도 없었다. 이에 종로구는 북한문화공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현재 총 17개의 구립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2013년에 개관한 삼청공원 숲속도서관도 그중 하나로 이 지역만의 문화와 자연을 가득 품은 도서관이 됐다.

도서관 한쪽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티 등을 3~4천 원 대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카페가 있다. 카페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면 프로그램실이 있다. 이곳

에서는 8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길 위의 인문학 – 선비의 일상, 삶의 품격을 배우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7번의 강의와 자개 공예 체험, 복층 탐방, 후속 모임 등 총 10회차로 구성돼 있으며 회차별 20명씩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다시 위로 올라오면 넓은 통창을 따라 마련된 창가 좌석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창틀을 넓게 설계해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자리로, 창밖으로 자연이 이어지는 덕분에 테라스를 지나다니는 고양이, 까치와도 마주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소파석과 좌식석 등 일반 열람 좌석이 마련돼 있어 취향에 따라 자리를 골라 앉을 수 있다.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삶에 지쳤다면, 잠시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독서하며 심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촌로 134-3 삼청공원 내
- 운영시간 : 화~일 10:00~19:00 (월요일, 1월 1일, 설, 추석연휴 휴무)

오늘의 음악

사이키델릭의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

길게만 느껴지던 방학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했다. 뒤엀킨 감정을 풀어주고 새로운 시작의 막막함을 서서히 느끼게 하는 네오 사이키델리아의 대가 팀임팔라의 음악을 소개한다.



▲ 출처 : VIBE

♪ 〈Feels Like We Only Go Backwards〉 – Tame Impala

"Every part of me says, Go ahead
I got my hopes up again,
oh no, not again
Feels like we only go backwards,
darling"

이 곡은 팀임팔라의 2집인 'Lonerism'에 수록된 곡이다. 호평이 자자한 앨범에서도 특히 돋보이던 이 노래는 동시대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의 모든 것이 앞으로 나아가라 소리치지만 결국 그녀와 함께했던 과거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잔잔한 한탄을 담고 있다.



▲ 출처 : VIBE

♪ 〈New Person, Same Old Mistakes〉 – Tame Impala

"Feel like a brand-new person
(But you'll make the same old mistakes)
Well, I don't care, I'm in love
(Stop before it's too late, I know)"

자신의 양면성이 서로 대화하는 형식의 가사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지만 항상 하던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풀어낸다. 서로 다른 면을 보는 두 인격의 대화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리듬감과 공감을 일으킨다. 새로운 시작에 어울리면서도 어울리지 않는 위화감을 조성한다.

유승윤 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 출처 : VI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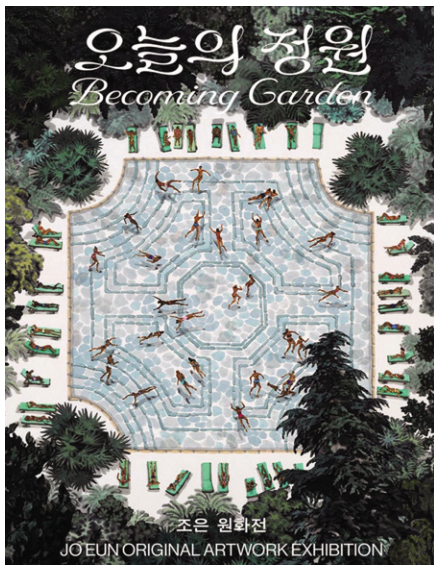
♪ 〈Dracula〉 – Tame Impala

"So run from the sunlight Dracula
Run from the sunlight Dracula
Isn't the view spectacular"

드라큘라에 자신을 빗대어 표현한 이 곡은 재치 있는 가사와 매력적인 훅이 밤의 공작 드라큘라를 현대적인 시선으로 느끼게 한다. 블랙핑크의 댄버 제니와 협력해 리믹스한 버전 또한 스페타클한 드라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

오늘의 전시회

켜켜이 쌓인 일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한국화 – **조은 원화전: 오늘의 정원**



▲ 출처 : 그라운드스이스

한국화는 한국의 전통적 재료와 양식 및 기법을 따르는 동양화를 의미한다. 선비의 사군자부터 서민들의 모습까지 다양한 장면을 먹빛으로 담은 한국화는, 현대에도 한지와 먹의 물성을 유지하면서 표현의 영역을 넓혀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전시 〈오늘의 정원〉은 수묵화의 문법으로 그림 속에 숨겨진 다양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보물찾기 △숲의미로 △공중산책 △나의정원 △묵분오색 다섯 가지의 주제로 진행된다.

전시를 여는 '보물찾기'는 다양한 크기의

캔버스가 도시의 직선적인 건물과 길에 어우러진 자연을 담고 있다. 그림을 하나씩 느긋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수묵 채색의 편안한 색감으로 캔버스 속 세밀한 요소들을 포착하는 재미를 선사한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잊고 있던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과 도시에 도스미는 자연의 생명력을 찾을 수 있다.

'숲의 미로'는 '보물찾기'의 도심을 벗어나 숲으로 향한다. 녹음이 우거진 넓은 공간에서 쉬고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캔버스에 박혀 있다. 수풀과 나무들은 무정형한 배치로 숲을 이룬다. '보물찾기'는 숲의 길이 갖는 '연결성'에 주목한 작품들이 자리했다. 숲속의 집, 사람들, 강을 헤엄치는 오리 떼 등 많은 요소가 숲과 이어진다. 이는 우리의 삶도 뜻밖의 순간, 만남에 의해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드러낸다.

'공중산책'은 숲에서 높은 창공을 나는 새의 시점을 빌린다. 작품 속 건물이나 수영장은 자로 잰 듯 반듯하지만, 그 주위를 둘러싼 울퉁불퉁하게 배치된 자연물의 대비가 인상적이다. 직선의 반듯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유로운 물결을 표현하며, 물결을 만드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모여 조화를 이룬다.

'나의 정원'은 궁궐과 산, 건물이 중첩되는 공간으로 그려나 아늑하면서도 다채로

운 시간을 표현한다. 사계절을 보내며 모습을 바꾸는 자연의 풍경처럼, 그림 속 사람들의 삶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작품을 보며 사람들의 일상은 어떤 소중함과 나 다음을 품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전시를 마무리하는 '묵분오색'은 현실의 풍부한 색채를 털어내 차분한 먹의 농담으로 이루어진 내면의 공간이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My Lovely Fairy Tale〉은 한지에 번진 먹을 지울 수 없듯 타인과의 만남이 서로에게 스며 흔적을 남기고, 흔적들이 쌓이면서 흑백 정원은 앞으로 또 새 인물들로 채워질 거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캔버스 위 각자의 이야기를 품은 사람들을 발견하면서 하나의 색으로 표현된 내면세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을 채워준 인연들을 떠올리고, 마음속에 나만의 정원을 그려본다.

《오늘의 정원》에서는 일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한 한국화 작품들을, 정원을 거닐듯이 감상할 수 있다. 전시를 따라 산책을 마치고 나면, 지나온 날들이 모여 만들어진 하얀뿐이 나만의 정원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

김서연 기자

(kimsy050317@skuniv.ac.kr)

- 전시기간 : 2026. 07. 17.(금) ~ 2026. 11. 29.(일)
- 전시장소 : 그라운드스이스 이스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2 이스트몰 2F)
- 관람시간 : 10:00~19:00 (입장 및 매표소 마감 18:00) · 관람비용 : 18,000원

오늘의 영화

친절한 이웃, 피터 파커의 이야기 –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2026)**



▲ 출처 : 네이버 영화

마블의 대표 히어로 스파이더맨이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왔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이후 5년 만에 이어지는 톰 홀랜드

의 네 번째 스파이더맨 단독 영화로, 피터 파커의 새로운 출발을 그린다.

〈노 웨이 홈〉에서 피터 파커는 자신을 둘러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선택을 한다. 그 결과 가장 가까운 친구인 MJ와 네드마저 피터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다. 〈브랜드 뉴 데이〉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없는 피터는 홀로 뉴욕을 지키며 스파이더맨으로 살아간다.

이번 작품에서는 기존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피터의 변화와 새로운 위협이 등장한다. 스파이더맨으로서 시민들의 기대와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피터에게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며 또 다른 갈등이 시작한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영웅'보다 '사람'에 초점을 맞춘 피터 파커의 모습이다. 피터는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졌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앞날을 두고 끊임없이 고민한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영웅이라도 결국 사랑과 책임, 선택 앞에서는 평범한 사람과 같은 고민을 한다

는 점에서 피터의 이야기는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스파이더맨의 오래된 메시지도 이어진다.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때로는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피터의 모습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선택과도 닮아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중에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도 있다. 과거의 선택을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브랜드 뉴 데이〉라는 제목은 단순히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뜻하지 않는다. 과거의 경험과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피터가 다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까지 담아내고 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피터 파커의 모습이 이번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다.

손서연 수습기자

(seoyeon802@skuniv.ac.kr)

오늘의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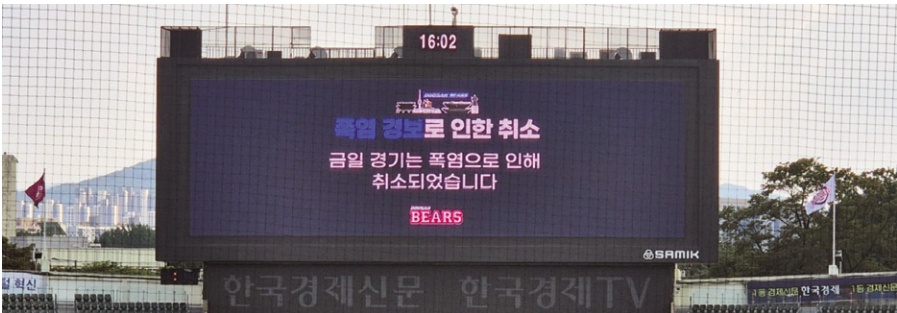
폭염으로 멈춰 선 야구, 한발 늦은 KBO의 대책

최대 관중을 향해 달려가던 프로야구가 기록적인 폭염에 멈춰 섰다. 취소된 프로야구 경기만 8월 9일 기준 총 30경기에 달한다. 특히 8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예정된 25경기가 모두 취소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8월 4일, '폭염 취소' 기준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한해서만 경기 취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계속된 폭염이 이어지자 이러한 기준만으로 경기장장의 위험도를 판단하기 충분하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KBO는 새롭게 기준을 개정했다. 새로운 기준은 폭염경보가 발효된 경우 경기 시작을 최대 1시간 늦출 수 있으며,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전까지 경기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폭염의 영향으로 프로야구 관객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35도까지 올라간 인천 경기에서는 뜨거운 날씨 속 경기장을 찾은 20대 관객 2명이 관중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중 1명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까지 받은 뒤 가카스로 의식을 되찾았다. 이날 폭염 속에서 경기를 강행한 결과 온열질환 의심 환자만 25명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차질 중대한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개정된 폭염 취소 기준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새 기준은 35도까지 치솟은 인천 경기는 열고, 경기 시간대 기온이



▲ 출처 : 위키트리

28도대로 내려간 광주 경기는 취소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안전을 위한 규정이 오히려 현장의 위험을 걸러내지 못한 채 공정성 논란과 대규모 온열질환자 발생이라는 후폭풍을 낳았다. 더불어 대다수의 야구 관계자들 또한 폭염 취소 기준을 문제 삼았다. 폭염 중대경보를 취소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온열질환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관중들이 장시간 서서 춤을 추며 응원하는 문화를 고려하면 취소 기준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KBO는 선수와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9월 6일까지 모든 경기를 오후 7시로 조정하는 새로운 대책을 내놴다. 하지만 폭염 수준이 당초 전망보다 완화됐다고 판단해 약 2주 만에 운영 기준을 재조정해 8월 25일부터 기준 6시 30분에 경기가 개시됐다.

또한, 폭염 관련 경기 거행 여부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도 보완됐다. 경기장이 속한 지역이 아닌 인접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을 때 현장 판단을 적극 반영해

경기 거행 여부를 검토한다. 관람객 입장 이후 또는 경기 개시 후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관람객 이동 상황, 현장 체감온도, 선수단 및 관객 상태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 거행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경기장 내외에 그늘막과 쿨링포그, 음수시설, 냉풍기 등의 확대를 검토하고 의료·응급구조 인력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으로 인해 잠시 멈춰 섰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러 사건·사고가 일어남에도 프로야구를 직접 관람하고 응원하고 싶은 관객들의 마음은 여전하다. 안전한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KBO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관객들의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다. 뜨거운 응원의 열기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뒷받침될 때, 야구장도 온전한 축제의 장으로 남을 수 있다.

박희린 수습기자

(pphrr0904@naver.com)